



Global Goings-on

미 국

■ 청소년의 흡연방지를 위해 향 담배 규제 나선 미 정부

워싱턴 - 담배 규제권을 부여 받은 미 식약청은 지난 화요일 향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초콜렛, 바닐라, 클로브(clove) 등의 향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겼던 담배 상품들의 판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 식약청은 클로브(박하늬) 담배 상품들을 규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곧 일반 시가와 소형 시가 시장으로까지 규제를 넓혀나갈 것을 시사했다.

식약청 위원인 마가렛 햄버그 박사는 향 담배의 판매 및 제조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향 담배는 많은 아동 청소년을 결국 흡연자로 만들고 있다”라 말했다.

2004년도 조사에서 17세 흡연자들은 25세 이상 흡연자들보다 향 담배를 흡연하는 경향이 세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향 담배를 다른 담배들보다 안전한 것으로 인식했다. 아이오와 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톰 하킨씨는 “딸기, 초콜렛 및 기타 향 담배의 마케팅 및 사용 자체를 금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 중독률을 낮추고 결국 이로 인한 질병과 보건의료비용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600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고 1,100명이 상시 흡연자가 된다고 한다.

본 규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식약청에 담배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에 서명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담배 시장은 2008년 그 매출 규모가 9백6십억 달러로 담배 판매를 통해 8백7십억 달러, 시가를 통해 4십억 달러, 씹는 담배 등을 통해 4십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 규제를 예상한 미국 내 담배 제조업자들은 향 담배의 생산을 이미 중단했으나 수입품들은 여전히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식약청은 담배 상품의 마케팅과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반 담배, 시가, 씹는 담배 등은 금지할 수 없다. 내년 1월까지 담배 제조업자들은 담배 제조에 사용된 성분과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7월까지 “연한” “순한” “저” 등과 같은 표현을 담배 상품에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

By Gardiner Harris(The New York Times 2009년 9월 23일)

<원문링크: <http://www.nytimes.com/2009/09/23/health/policy/23fda.html?ref=policy>>

영국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산하 정신병원에서 대다수 정신질환자 안전감을 못 느껴

영국국가보건서비스 산하 정신병원 입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공식 조사에서 단지 소수의 응답자들만 병동에서 “항상 안전감을 느꼈다”고 대답했고 대다수는 병원의 서비스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늘 출판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들 중 겨우 3분의 1만 자신들의 치료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꼈다. 많은 환자들이 상담

이나 소위 “대화 치료”에서는 거부당했으며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설문지는 지난 6개월 간 적어도 정신질환 중 환자실에서 48시간 이상 머문 후 퇴원한 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자들 중 30%는 연령, 인종, 성별, 장애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70%는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이 조사는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전에도 나타난 바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재확인시켰다. 하나는 환자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 동료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위험이다.

안전에 대한 질문에서 약 45%의 응답자들은 병동에서는 항상 안전감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39%는 가끔, 16%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본 조사에서 부각된 또 다른 불만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35%의 응답자들은 주 중에 할 일이 너무 없다고 대답했고 이보다 더 많은 54%의 응답자들은 이런 지루함은 주말과 저녁에도 마찬가지라도 대답했다.

상담, 인지행동치료, 불안 관리와 같은 대화

치료 제공 여부에 관해서는 52%가 이런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대답했고 겨우 29%만 이런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다 긍정적인 대답으로는 85%가 병원에 입원될 때 반기는 느낌을 가졌다고 대답했으며 8%만 병실에서 이성과 같이 침실 구역을 공유해야 했다고 대답했다. 환자 중 거의 4분의 3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케어에 대해 “좋다,” “매우 좋다” 혹은 “훌륭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27%나 되는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환자로 분류될 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거의 절반(48%)은 처방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 시 자신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다고 대답했으나 41%는 간호사들과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by Owen Bowcott(The Guardian, 2009년 9월 24일)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society/2009/sep/24/mental-health-patients-feel-unsafe>>

세계보건기구

교통사고, 자살, 임신 및 출산이 젊은 층 사망의 주요 원인

WHO가 지원한 세계 사망 패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2백6십만의 청소년들이 사망한다.

10세~24세의 청소년에 대해 최초로 시행된 세계 사망 패턴 연구에서 교통사고, 임신 및 출산, 자살, 폭력, HIV/AIDS, 결핵이 청소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거나 치료가 가능하다. WHO의 후원으로 수행되어 의학잡지 The Lancet에 실린 이 연구는 매년 2백6십만 명의 청소년들이 생을 달리 하고, 사망한 청소년들의 97%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유래 없이 많은 청소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 18억으로 세계 인구의 30%. 현재까지 세계적으로나 지역에 따라 분류된 청소년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망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었다.

WHO의 가족 및 지역 보건국의 사무총장보인 데이비 마푸벨루씨는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지만 자칫하면 성인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로 볼 때 청소년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행동을 피할 수 있도록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보건 분야뿐 아니라 교육, 복지, 교통, 사법 모든 분야를 망라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WHO 권고사항

WHO는 안전한 행동을 권장하고 건강을 개선하며 청소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교통사고는 속도제한, 음주단속, 안전헬멧, 안전벨트 등의 의무화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
-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콘돔 및 기타 피임

방법,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안전한 낙태술, 임신 전 및 산부인과 케어, HIV 검사 및 상담, HIV/AIDS 케어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과 임신에 관련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청소년들에게 평생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폭력과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지역 케어를 제공하고 및 응급치료서비스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성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치료 및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부상 및 폭력으로 인한 중단기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WHO News, September 11, 2009.

〈원문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09/adolescent_mortality_20090911/en/index.html〉